

어명소 제2차관, “공항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안심보안”

- 3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간담회... 지원전략 논의 · 보안검색 현장 점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일(수) 오후 청주국제공항에서 충청북도, 4개 정부·공공기관, 6개 항공사*를 만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전략을 논의하였다.

* (정부·공공기관) 청주국제공항 세관·출입국·검역, 한국공항공사
(항공사)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제주항공, 진에어, 티웨이항공, 에어로케이항공

- 어 차관은 “청주국제공항은 '97년 개항 이후 작년에 역대 최대치인 317만명이 이용하였고, 향후 신규노선 발굴*, '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”면서,

* (티웨이) 태국(방콕), 일본(오사카) / (에어로케이) 일본(오사카, 나리타), 대만(타이베이)

- 국토부는 “이달 착수 예정인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발굴하고,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간담회 직후, 어 차관은 보안인력, 시설 및 장비 등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대테러 상황실·보안검색대 등 공항 보안현장을 점검하였다.

- 어 차관은 최근 인천공항 송환 대기자의 밀입국 시도와 제주공항 드론 출현 등 잇따른 보안사고를 언급하며 공항관계자에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당부하면서 “항공 여행객이 청주국제공항을 안심하고 찾도록 보안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공항 활성화의 기본전제”라며,

- “공항 검색요원 등 현장인력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보안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공항 외곽울타리, 터미널 경계지역 등 취약지역도 면밀히 점검하여 보안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”고 강조하였다.

2023. 5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